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

황희영 (영산대학교 무역물류학과)

0. 성경적 경제학의 기초

현대 경제에서 학문적 대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실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시장의 균형,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화폐 정책,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전략 등일 것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이들 분야에 각기 적용되어 분과학문으로 잘 정립되어 왔다. 또한 이를 위해 많은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러한 현대 경제학에 비해 성경적 경제학이라는 것이 성립 가능하다면 그 대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적(biblical)’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경제학은 우선 그것이 다루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면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긴다. 현대 경제학을 아담 스미스 이후의 학문으로 인식했을 때 200년이 좀 넘는 학문이 수천 년을 지낸 성경의 말씀을 다루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오랜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의 학문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문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성경의 시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것은 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앞의 사건을 설명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현상이 아니라 원리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후에 생긴 이론과 설명 원리가 역사적으로 앞선 것에 대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성경적 경제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경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하여금 현대적 현상들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1. 성경적 경제와 현대 경제 시스템의 불일치

만약 성경 말씀으로부터 세울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있다면 그 학문의 궁극적인 가치와 지향점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Lordship)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몸으로부터 지체로서 나온 것이 그 몸에 대해 정당성을 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경적 경제학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대의 경제 시스템은 매우 심각하게 이 점에서 불일치한다. 현대 경제 시스템은 무신론적이며 인본주의적이므로 성경과는 양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적 경제학이 학문으로서 정립되려면 현대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대의 경제 시스템의 궁극적 가치체계와는 양립할 수 없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성경적 경제학이 가능하려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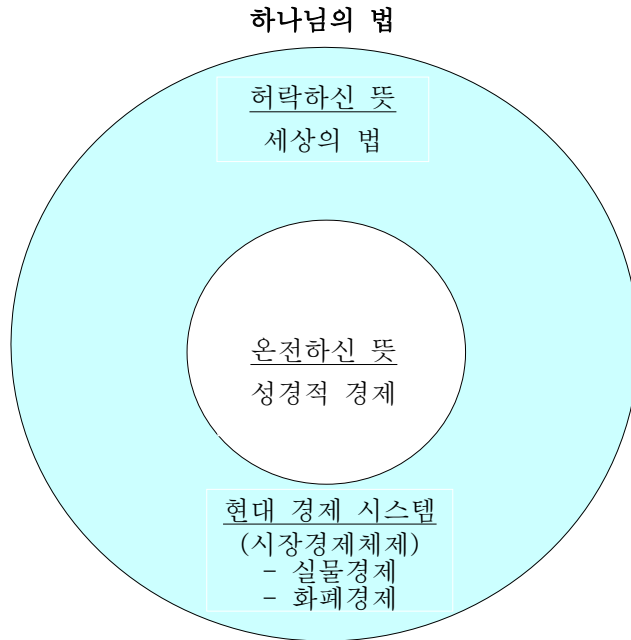
성경에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 마태복음 22장 17절~22절과 마가복음 12장 13절~17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묻는다.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한다면 로마 황제의 권세와 복종을 부인하는 반역이 되고, 로마 황제를 권위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된다. 논리적으로는 딜레마로 보이는 상황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현상적으로는' 별개로 있음을 인정하셨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지어진 후부터 이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르는 전 시기에 걸쳐 흐르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구원의 계획이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위 성경 구절에 따르면 가이사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계의 존재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permissive will)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첨단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뿌리 깊이 내려진 경제 시스템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으로서 믿는 사람에게든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조차 경제 시스템 내에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로마 황제의 통치 공간과 경제 시스템 속에 살고 계셨으며 그것을 받아 들이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낚시를 하여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얻어 예수님과 자신을 위한 성전세로 내었다. 비록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고자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금을 내신다고 하셨다(마태복음 17장 24절~27절).

그러므로 가장 위에 하나님의 세계와 법, 즉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역사하는 경제가 있는 반면,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로서 존재하는 경제 시스템이 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역사하는 경제는 그 자체로 성경적 경제이며 그것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면 성경적 경제학이 될 것이다. 반면 우리가 잘 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는 사회 제도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 작동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경제

학이 있다. 이 둘은 공존하는 두 개의 별개의 패러다임이며 서로 침노하는(penetrating) 관계에 있고 충돌할 때가 있다.¹⁾ 성경적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포함하는 세상의 경제를 다 설명할 수 없으며, 반면 세상의 경제는 외관상 비록 전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그것이 넘어서지 못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 그림 1 > 하나님의 법과 경제 공간

2 세상의 경제 시스템의 기초

“세상의(of the world, worldly)”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자신들과 크리스천들을 구분하는 의미로 들려지는 말 중의 하나이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은...”이라고 말할 때 자신은 마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몸은 세상에 속하나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의 세상 이 둘 사이에 구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둘의 기초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세상의” 경제의 시스템

1) 세상의 법과 경제 질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제와 경영을 침범하여 그 기반을 없애고자 한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주5일제 실시와 다른 한편으로 주일 근무가 빈번해지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림 1> 가운데 있는 화살표는 이 두 세계가 서로 침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은 어떤 기초 위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기초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2.1. 현대 경제학의 기초

아담이 에덴을 나온 이후부터 모든 인류의 경제의 기초는 수고하여 노동해서 만든 것을 먹고 쓰는 데 있다. 인간 위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로부터 여러 차원의 문제의식이 발생한다. 먼저 생산요소와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로서 자원의 문제가 있다. 노동을 덜 하면서도 더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한 생산성의 문제가 있고, 잉여 생산물을 축적하며 관리 계승하는 부와 경영의 문제도 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인류에게 가장 먼저 닦친 문제는 자원과 자원을 활용한 생산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그 후 축적에 따른 부의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반해 교환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경제학이 다루는 실물 경제(생산)와 화폐 경제(교환)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위와 같은 역사의 기초 위에 뒤늦게 나타났다.

시장(marketplace)에 관한 문제의식은 교환이 경제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원리로서 작동하게 된 이후에 성립한 것이며 빨라도 로마제국시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화폐의 발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 활동의 중심적이며(central) 본질적인(essential) 것으로서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시장이 경제 시스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더 많은 이익(benefit)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준 이후부터라고 생각한다. 비록 시장이 순기능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각 개인의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완하기는 하였지만 선의로부터 나온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장의 체제가 안정된다는 그의 논리는 일종의 도그마로 형성되었다²⁾.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을 시장 경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격을 중심으로 한 시장 메커니즘을 경제원리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경제 활동의 시작 이후 중심 이슈였던 자원-부-교환의 문제의식을 '시장'이 통합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난 200년 동안 이론을 개발하는 데 수고해왔다. 아울러 이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상들이 덧붙여졌다. 공리주의는 인간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고, 또 어떤 경제학자는 시장이 불균형을 이룰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는 균형을 향해 더듬어 가는(tatônnement)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까지 하며, 한 단위 소비를 증가시킬 때 추가적인 효용이 느껴지지 않을(null) 때까지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한다. 시장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격 변수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가격을 신호로 삼아 행동할 때 모든 참여자들이 더 많은 이익(benefit)을 누린다고 하며

2) 도그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장의 논리에 대해 이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의문들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시장을 정당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현대의 경제학은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 세상의 법을 최우위에 두고, 정부는 그 안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학교와 정부 그리고 기업으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의 권세들에게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뜻 내에서 이 사회의 시스템으로서 작동하고 있을 따름이다. 공리주의, 합리성, 그리고 한계주의가 성경에 없다면 '보이지 않는 손'도 성경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이 성경적 경제 또는 경제학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기초를 세워야 할 것이다.

2.2 자원, 생산, 부에 관한 세상의(worldly) 해석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 가장 먼저 다친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였을 것 같다. 에덴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는 곳이었으며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 에덴을 나온 이후는 '수고하여 노동하여야만' 식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아담 자신은 몰랐겠지만 이 상황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생산 요소인 땅 위에서 노동을 투입하고, 도구를 사용하여(생산성),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생산물, 산출)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개척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인류에게 다친 문제는 끊임없는 생존의 과제였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반복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³⁾. 첫째, 자원은 유한하며 희소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만 사용하기 경쟁했을 것이다.⁴⁾ 둘째, 더 많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더 많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면 더 많은 산출물을 얻는다. 넷째, 먹고 쓰고 남은 생산물을 보관하게 되면 더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미 성경은 그들이 생산에 특화했으며 그 것이 다양한 직업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는 곳도 있다(창세기 4장 20절~22절).

이들은 매우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짐작케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이들이 불어났으며 힘센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거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자원-생산-부의 관점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 단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듯이 생산하여 먹고 쓰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생산력을 높이고 생산수단을 고도화하며 산출물을 많이 남기는 목표는 사람의 목표였을지언정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로 심판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죄의 심판의 결과는

3) 물론 이것은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4) 그러므로 그들은 이 자원을 자신의 것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쟁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사이 등에서 보이는데 매우 심각한 갈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떨망이었다.⁵⁾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경제와 경영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하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다는 큰 (온전하신) 뜻 아래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경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우선 하나님의 뜻이 경제와 경영에 온전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3. 성경적 경제의 기초

3.1. 자원

만약 생산요소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자 애쓰는 것이 인간 위주의 사고였다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을 통해 창조 이래 인간이 어떻게 경제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적 경제가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명 요소들이 성경에 실재할 것인가? 이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땅을 정복하며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이 부여받은 것이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땅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그것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⁶⁾ 뿐만 아니라 29~30절에서는 땅의 채소와 과일 맺는 나무들, 각종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을 먹으라고 축복하셨다. 이를 통해 인간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부족하고 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함에 있다. 흔히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원인으로 경제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

자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잘 보여주는 두 사건이 있는데, 둘 다 마시는 물, 즉 수자원에 관한 것이다. 첫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 식수 문제에 봉착한다. 홍해를 건너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었다. 그런데 처음 발견한 것이 쓴 물이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가지를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다. 또한 트리바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내리침으로써 물의 원천이 열렸다(출애굽기 15장, 17장).

둘째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낸 직후 여리고 성에 머물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와서 도시는 매우 아

5) 노아의 홍수를 말한다.

6) 지배 통제와 착취는 다르다.

름답지만 물이 좋지 않아 곡식이 익지 못하고 땅이 황폐하다고 했다(열왕기하 2장 19절~22절).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여 그것을 물의 근원에 가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자 그 물이 고쳐졌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원은 우리의 말에 순종하며 사용가능한 상태로 변한다.

따라서 자원은 본질적으로 제한되며 희소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때 획득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모세와 엘리사가 순종하고 실행했을 때 자원이 사용가능하게 되었다.7)

3.2 생산

하나님의 경제에서 생산 함수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성경에는 기록된 시기가 농업 중심의 시대였으므로 땅과 기후에 관한 내용들이 많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산의 관계가 중심에 있다. 먼저 사람들이 “축복의 약속”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신11:13-15)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풍성함(abundance)을 구할 때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서술된 약속을 하신다. 위 말씀은 “... 명령을 청종하고, ... 전심으로 섬기면, ... 필요한 것들을 얻고 배부를 것이다.”라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풍요로움과 전혀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동일한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고 계신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11:16-17)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레26:19-20)

7)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적용한 것이 토라농법(김진홍, 2001)이라고 일컬어진다.

위의 말씀들에서는 이상승배의 결과가 농업 생산과정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인 변수들의 작용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물들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중심 메시지이다. 산출물의 풍요와 결핍 중 어떤 상황이든 생산물은 생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즉 성경적 경제에서 산출물은 영적인 함수이다.

3.3. 부와 부의 경영

이기심에 기초한 공리주의, 합리성과 한계주의 등과 같은 시장 경제 체제의 기초 이념들을 사람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일 때 그들은 동시에 시장 경제를 그 어떤 다른 체제보다도 더 많은 유익을 주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 결과 시장경제 시스템 안에서 더 많은 부의 추구하고 소유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성경적 부(wealth)와 부의 경영이 가능하려면 시대적으로는 일단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듯이 시장 경제로부터 나온 부와 경영의 원리가 하나님의 부와 경영의 원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난 부에 대해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의 때부터 “많은 소유”를 누린 것을 볼 수 있다.⁸⁾ 목축과 경작의 결과로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었다. 부의 규모와 부의 관리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 원리를 세우기에는 말씀이 충분하다.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반복되는 것은 앞의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으며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가 충분했다. 그러나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다.” 그들은 “가옥과 땅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소유를 원했고, 이를 위해 포화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로 땅은 황폐해졌고 생산력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사야 5장 7절~10절)

성경의 부는 백성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분량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의롭게 행동할 때 백성들 전체에 내려지는 산출물이 극대화되는 반면, 한 개인에게 부의 집중이 일어나고 과다한 부를 소유한 자들이 불의하게 행동할 때 국가 전체에 대한 생산력의 크기는 급격히 감소했다. 공의로운 부와 부의 경영은 국부를 최대화시키는 반면 불의한 부와 부의 경영은 국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부는 영적인 함수관계에 있다.

신약에서는 청지기 의식(stewardship)이 구약에서의 부와 부의 경영의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는 천국을 달란트에 비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부와 경영에 대한 몇 가지 핵심 개념이 등장한다.

첫째, 하나님이 부를 맡긴다는 것 (위탁; “소유를 맡김(14절)”), 둘째, 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경

8)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욥 혹은 요셉과 같이 되고 싶어 한다.

영;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16절)”, 셋째 그 결과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결산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19절)”)이며 넷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21절)”). 누가복음 19장 12절~26절에는 이에 덧붙여 하나님의 부와 경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17절)”).

따라서 성경적 부와 관리의 원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를 경영하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맞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⁹⁾ 물질의 용도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그 뜻에 순종하면 부는 그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진다. 관리 및 운영을 통해 불어난 부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서 사람이 상호 작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에서 부가 땅으로 부어지며, 착하고 충성된 관리자를 통해 경영되었다가 그 결과물이 다시 하늘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적 부와 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며 이는 영적인 것이다¹⁰⁾.

4. 경제에 대한 현대 크리스천들의 관심

마지막으로 성경적 경제에 관하여 현대의 미국과 한국에 나타난 문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관심사로 나누어진다.¹¹⁾ 첫째는 주로 미국의 경향으로 “성경적 경제에 합당한 개인 차원의 윤리들” 즉 “재정에 관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며¹²⁾, 둘째는 주로 한국에서 보이는 것으로 “성경적 부의 정의(definition)와 소유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재정 윤리”는 한 측면으로 경제 시스템 내에서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경제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태도, CEO-관리자-사원으로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의 직무 윤리, 생산-회계-품질관리 등과 같은 직능별 윤리, 보험-은행-의료-호텔 등과 같은 산업별 윤리 등에 세부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업무 내에서 충실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 다른 한 측면은 개인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개인 재정 관리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벌어서 저축-소비하는 어떻게 하며, 어떻게 가정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 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깨끗한 부(淸富)라는 것이 가능한 개념인가?”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또

9)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보통 해석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그 자체로 부이다.

10) 개인 간 생산력이나 생산성의 편차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획일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상급의 차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11) 성경적 부와 경영에 관하여 필자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뒤에 첨부하였다.

12) 그렇지만 그 개인이 어떤 기업의 경영자라면 조직 차원의 윤리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직장 내에서의 복음 전파 활동에 관한 것이다. 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빈곤(가난)과 결핍의 주제를 다루는 문헌들이 다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발적 가난, 분배 시스템을 통한 해결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¹³⁾ 한국에서 직장 내 복음 전파는 직장을 선교지로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재정에 관한 기독교 윤리와 성경적 부의 정의에 대한 두 경향은 모두 어떤 개인이라도 모든 재정의 근원인 동시에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른바 Lordship을 인정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기독교 재정 윤리가 청지기 의식을 상실했을 때에는 축복이라는 미명 하에 소유를 위한 기복적 윤리 규범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淸富 (혹은 반대로 淸貧)라는 것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유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로 전락할 때 하나님의 재정의 통로라는 청지기 본래의 사명을 떠나 종교적, 율법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먼저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 성경 말씀을 내포할 수 없음을 말했다. 왜냐하면 최근 2세기 동안의 논의가 창조 이래의 질서에 대해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 시스템의 기초와 성경에 나타난 경제의 기초들이 양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 시스템은 자원-생산-부-경영의 일관된 문제의식에서 인간의 이기심, 자원의 희소성 등에서 출발하여 공리주의와 한계주의를 등에 업은 시장 경제 체제가 통합적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물질 기반 위에 서있는 반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문제의식은 이 모두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즉 성경적 경제학에서 영성(spirituality)은 자원-생산-부-경영에 관한 함수에 내생적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점은 원리 수준에서부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현재, 성경의 경제 원리와 시장 경제 체제는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법이 궁극적으로 통치하지만 일시적으로 허용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립하고 있다. 신실한 크리스천은 성경의 경제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동시에 시장 경제 체제에 속해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침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경제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것이다.¹⁴⁾

13) 이들의 제안은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이다.

14) 이 논문은 성경적 경제에 관해 가장 핵심인 자원-생산-부와 경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성경 말씀은 그 외에도 노동, 임금, 상거래, 토지, 산출물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성경적 부와 경영에 관련된 도서 목록>

- 김동호, 깨끗한 부자: 청부(淸富), 규장, 2001.
- 김동호,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칙, 청림출판, 2005.
- 김성주,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중앙 M&B, 2000.
-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 IVP, 2003.
- 김재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발전의 비전, CUP, 1990.
- 김진홍, 성경의 경제와 경영, 두레시대, 2001.
- 대전덕, 대전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흥성사, 2003.
- 데이빗 필드, 직업과 소명, IVP, 1984. (원제: David Field and Elspeth Stephenson, *Just the Job*, Ch. 1 "Work, the Bible and You", IVP-UK, 1978.)
- 도널드 헤이, 현대 경제학과 칭지기 윤리, IVP, 1996. (원제: Donald A. Hay,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 래리 버के트, 가정 경제의 지혜, 보이시스, 1994. (원제: Larry Burkett, *What Husbands Wish Their Wives Knew About Money*)
- 래리 버케트,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목회자료사, 1992. (원제: Larry Burkett, *Answers to Your Family's Financial Questions*)
- 래리 버케트, 돈, 다스리기(1), 돈,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3), 올바른 돈관리(지도자용), 규장, 1993. (원제: Larry Burkett, *How to Manage Your Money*)
- 래리 버케트,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CUP, 1993. (원제: Larry Burkett, *Your Finance in Changing Times*)
- 랜디 알콘, 부자 그리스도인, 생명의 말씀사, 2002. (원제: Randy Alcorn, *The Treasure Principle*, OR: Multnomah Publishers, 2001)
- 로널드 사이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IVP, 1998. (원제: Ronald J. Sider, *Rich Christians and Age of Hunger*, Word Publishing, 1997)
- 로렌 커닝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예수전도단, 1989. (원제: Loren Cunningham, *Is That Really You, God?*)
- 로렌 커닝햄, 벼랑끝에 서는 용기, 예수전도단, 1993. (원제: Loren Cunningham, *Daring to Live on the Edge*, YWAM, 1991.)
- 로리 베스 존스, 최고경영자 예수, 한인, 1999. (원제: Laurie Beth Jones, *Jesus CEO*)
- 로버트 J. 태머시(편), 완전한 성공(1): 일터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CUP, 1999. (원제: Robert J. Tamasy, *The Complete Christian Businessman*)
- 로버트 J. 태머시(편), 완전한 성공(2): 가정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CUP, 2000. (원제: Robert J. Tamasy, *The Complete Christian Businessman*)
- 리처드 쉐닝·존 에비·셜리 로엘즈,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 IVP, 1995. (원제: Richard C. Chewning, John W. Eby & Shirley J. Roels, *Business through the Eyes of Faith*)
- 리처드 쉐닝(편),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 IVP, 1993. (원제: Richard C. Chewning(ed.),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Practice*, CO: Navpress)
- 리처드 C. 쉐닝(편), 성경의 경영 원리,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원제: Richard C. Chewning(ed.),

-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 리치 마샬, 왕의 사역, 서로사랑, 2005. (원제: Rich Marshall, *God @ Work*)
- 마이런 러쉬, 예수의 경영원리, 요나, 1995. (원제: Myron Rush,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역), 문예출판사, 2006. (원제: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c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 박철수, 돈과 신앙, 예찬사, 2001.
- 방선기, 기업경영과 하나님 나라, 엠마오, 1994.
- 방선기, 크리스천@직장, 한세, 2000.
- 방선기, 이리 가운데 분투하는 양을 위한 콘서트, 브니엘, 2006.
- 손경구, 돈과 영적 성숙, 두란노, 2002.
- 양명수, 기독교 사회정의론-가복하신 하나님,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양창삼, 하나님의 부자경제학, 브니엘, 2007.
- 에드 실보소, 사업을 위한 기름부으심, 순전한 나드, 2004. (원제: Ed Silvano, *Anointed for Business*, CA: Regal Books, 2002.)
- 엠마뉴엘 수녀, 풍요로운 가난, 마음산책, 2001. (원제: Soeur Emmanuelle & Philippe Asso, *Richesse de la pauvreté*, Paris: Flammarion, 2001.)
- 이정우(외), 헨리 조지, 경북대학교출판부, 2002.
- 이재윤, 록펠러: 십일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미래사, 2006.
- 임성일, 크리스찬노믹스 - 크리스천의 경제관과 경제생활, 쿠파출판사, 2004.
- 자크 엘룰, 하나님이나 돈이나, 대장간, 1991. (원제: Jacques Ellul, *L'homme et l'argent: nova et vetera*, 2e édition complétée, Lausanne: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1979)
- 잭 하트만,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베다니출판사, 1994. (원제: Jack Hartman, *Trust God for Your Finances*)
- 전강수·한동근,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 이야기, CUP, 2000.
- 제리 플레밍, 정직한 경영이 돈을 번다, 생명의 말씀사, 2006.
- 조상국, 크리스찬 경제학도를 위하여, CUP, 1989.
- 조성기, 유일한 평전, 작은 씨앗, 2005.
- 존 아반지니, 십일조를 잘 해도 왜 안 풀리죠, 베다니출판사, 1997. (원제: John Avanzini, *It's not Working Brother John*, TX: HIS Publishing, 1996)
- 존 아반지니, 채무의 영을 결박해야 산다, 베다니출판사, 1998. (원제: John Avanzini, *War on Debt: Breaking the Power of Debt*, OK: Harrison House, 1997)
- 크래그 힐·얼 피츠,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예수전도단, 2004. (원제: Craig Hill & Earl Pitts, *Wealth, Riches and Money: 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Family Foundations International, 2001)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원제: Henry George, *Poverty and Progress*,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81.)
- Marshall, Rich, *God @ Work Volume 2: Developing Ministers in the Marketplace*, Shippensburg: Destiny Image Publishers.